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❶ 영화 탄생 125주년: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



▶ **김혜신 영화 · 문화평론가**는 파리 제3대학교(소르본누벨)에서 영화영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전주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국제비평가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혜신 평론가의 '시네마 만다라'는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 중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월간 연재.

영화, 세상을 바꾸다



〈뤼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의 한 장면(러시아 4K 전환 버전 유투브 캡처).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라프' 라는 복합 기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단편 열 편(해당작 포함)을 모아 영화사의 첫 프로그램을 편성, 이를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관람료 1프랑을 받고 상영했다. 세계 최초의 유료 극장 상영이라는 점에서 현대 영화의 기원으로 공인된다.

연재를 시작하며

'제7의 예술' 로서 지난 125년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가 중세적 팬데믹과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각축장인 OTT 사이에서 역사상 아마도 가장 위태로운 시기 중 하나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심도 있는 기획 하에 '영화' 의 탄생과 번영을 돌아보며 그 미래를 생각해볼 계기와 함께 그간 우리에게 다가왔던 빛나는 영화적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소환해볼 지면을 마련해준 분들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남미의 작가 호르세 루이스 보르헤스(J. L. Borges)는 무엇보다 "관용적인 정신을 견지해온" 항상심과 비폭력으로 불교가 2500여 년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깊이 공감하는 필자는 앞으로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다양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외견상 불교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 혹은 이웃종교에 관한 언급도 배제하지 않고 끌어안을 것이다. 영화의 기원이 유럽인 이상 서구 영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그 기독교적 문화 풍토나 근본 철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이슬람 문화권의 감독들이지만 그 누구보다 더 영화 작품 및 활동을 통해 붓다(Buddha)의 정신이나 자비심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초청됐던 이란의 마흐말바프(M. Makhmalbaf)가 대표적이다.

영화는 불교처럼 문화와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모두 넘는 프리 '패스포트(여권)' 이자 보편어로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본 연재는 보편어를 모색해온 영화의 시간 속에 담긴 각양각색의 무늬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초기 시네마와 영화(들)의 역사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라프(Cinématographe)' 라는 촬영 카메라와 영사 메커니즘이 일체화된 기제를 발명하고 그 신기술을 이용해 대중들에게 파리 도심의 그랑 카페에서 처음 관람료 1프랑짜리 '시네마' 를 선보인다. 당시 기술로 최대치인 50초 내의 영화 10편이 프로그램이었고, 그 중에서도 1번 프로그램은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었다.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기차〉(18%)는 말하자면 세계 첫 '흥행' 영화로서, 1895년의 첫 상영작은 아니다.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스크린으로부터 상영관 속으로 질주하는 듯한 증기기관차를 황급히 피하기도 하며 함께 전율한다. 이 점에서 세계 최초의 '공포영화' 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오늘의 관객이 3D나 VR 혹은 최첨단 XR을 통해 가상현실을 첫 체험할 때 느끼는 감각과 비교할 수 있을 테지만, 당시의 문화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컸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물론 서구에서 '매직랜턴(幻燈)' 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한 원형적 영화 체험(장터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은 18세기부터 있었고 19세기 후반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대형 '파노라마관' 에 걸리는 볼거리도 유행한 바 있어, 당시 대중들에게 그와 유사한 시각 체험이 아주 생경한 것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첨단 시네마토그라프로 촬영된 현실의 생생한 이미지를 화면에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듯 카메라와 스크린 영사(映寫), 관객의 개념이 뤼미에르 형제로 대변되는 현대영화의 세축이다. 프로젝션을 통해 투사된 상이라는 의미인 영상(映像)은 원래 미국에서 즐겨 썼던 용어인 영화(映畫, Motion picture)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영화영상' 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에 속하나, 오늘날은 영화예술 분야와 차별화하여 방송을 포함한 여타 영상영역(Audio-visual) 등을 포괄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한다.

사실 방송 영상의 기초는 독자적이라기보다 사운드와 이미지 예술인 영화학에서 온다. 오늘날 'Cinéma(프랑스어)', 'Kinema(독일어)' 라는 말은 뤼미에르적인 카메라와 스크린 상영에 바탕을 둔 영화 매체이자 영화 상영관, 그리고 미장센을 포함한 일체의 영화학(시네마토그래피)까지 통칭하는 국제적인 약어이다.

시네마는 크게 보아, 움직임을 기록한 모든 동영상을 칭할 수 있으며, 사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하는 설치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TV 부처' (1974)와 같은 설치작으로 미디어아트 혹은 비디오아트의 시조가 되는 백남준 또한 넓게는 '시네아스트' (Cinéaste, 영화감독을 포함하는 영화 예술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84년 새해 첫날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을 통해 세계 여러 곳의 공중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위성 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유럽에 있다 보면 이를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그만큼 시네마의 영역은 폭넓고, 현대미술이나 방송 같은 인접 분야와도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뤼미에르 형제가 제작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최초 상업영화로 기록돼 영화, 불교처럼 장벽넘는 자유자재 '프리 패스포트'

초창기 메이저 극장에 주로 걸렸던 영화로는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에 이어 멀리 미국 대중들까지 사로잡았던 조르주 멜리에스류의 픽션 혹은 판타지 영화가 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흥미로운 영화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령, 아벨 강스(A. Gance)와 같은 이가 이미 1920년대 일반 상영관에서 멀티스크린을 가지고 작품을 기획, 상영하는 선구적인 형태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후일 미디어아트는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 나란히 설치한 세 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재현된 〈나폴레옹〉(270분, 1927)을 보며 장대한 스케일의 시각으로 '듣는' 오페라와도 같은 그 영화적 상상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오늘의 디지털영화는 규격화된 산업 규모는 커져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작품의 다양성과 실험성, 상영관 구조와 스크린 포맷, 배급과 '대중성' 면에서 초기 영화보다 창의적이고 풍요롭다고 하기 힘들다. 이 면에서 멀리 보아, 이 위기가 오히려 획일화된 지배구조 하에 무한 반복되어온 세계 영화산업에 균열을 일으키고 타성에서 벗어날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줄지도 모른다.

팬데믹 한복판서 소환하는 기억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서구 사회에 정신적 위기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던 1920년대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성의 것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영화와 여타 예술이 시도됐던 때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프랑스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 · New Wave)' 라는 일종의 영화 운동도 포스트 세계대전 상황과 경제적, 정치적 난관 속에서였다는 점을 돌이켜본다. 이는 전 세계 영화의 르네상스와 '작가주의' 영화 붐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한국영화사에서도 1960년대는 유현목의 〈오발탄〉을 비롯한 수작들이 줄을 이었고 많은 관객(1961년 5800만 여명, 1969년 약 1억 7300만)이 호응했던 명실공히 영화의 르네상스기였다. 우리가 거의 준전시 상황인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희망의 씨앗을 생각하는 근거는 그러한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이다.

그 예를 도저히 열거할 수가 없지만, 러시아의 지가 베르토프(D. Vertov)만은 초기 영화언어의 정수와 혁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하다. 그의 대표작 〈카메라를 든 사나이〉(1929)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베르토프는 무엇보다 진정한 보편어이자 대중 언어로서의 영화를 창안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고 그 실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는 영화가 기존 유한 계층의 '예술' 언어들이 갖는 지배적 틀을 완전히 깨고 어떤 새롭고 순수한 '영화적인' 언어로 민중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했다. 창조적 부정에 근거한 그의 영화적 태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지면에서 더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에서부터 초기 이야기들을 꺼낸 연유를 되짚어본다. 요는, 영화의 초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연재를 통해 많은 분과 더욱 열린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 수가 있고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포석을 한둘 놓을 수 있겠다는 복안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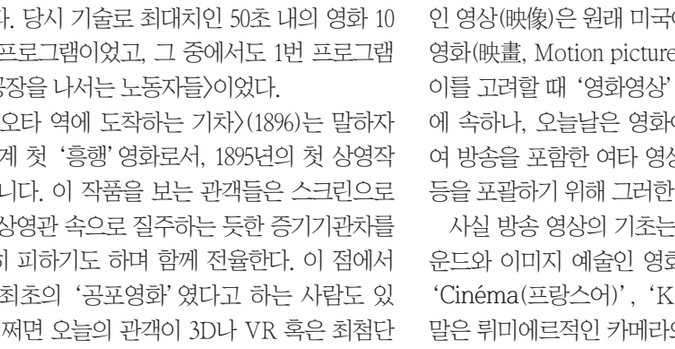
어려운 종교 교리들 또한 시원이나 초기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이해가 쉽고 명확해지는 일면이 있듯이, 기원이 분명한 영화는 더욱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이를테면, 불교의 경우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인 아함(Āgama)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니까야(Nikāya)로 돌아가 보는 것이 심플하면서도 의미가 있듯, 시네마(토그라프) 혹은 키노-아이(Kino-eye, 베르토프의 용어)의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쉬운 전달을 위해 불가피한 생략과 논리 비약과 단순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 미리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영화사는 거칠게 말하면 뤼미에르적인 다큐멘터리 전통과 멜리에스적 픽션 영화 혹은 그리피스(미국)적인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전통, 크게 두 갈래 범주의 전통을 갖게 되었다. 고래로부터 이어지는 기존 연극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나, 사실은 그 기저의 잠재성과 에너지가 무한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올 '시네마(들)' 속에는 경이로운 인류의 보편어를 창조하려 애썼던 125년간의 시도들이 더 많이 수렴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기를 염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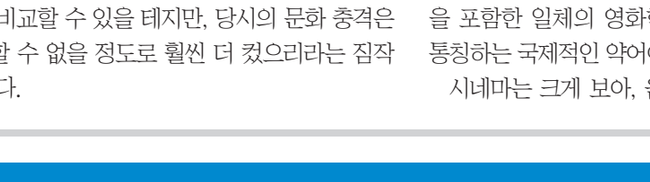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연꽃칠성촛대 /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김계숙 원장

- 1:1 집중관리
- 신뢰·정확한 정보
- 성사위주
-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